

# ‘미니 수능’ 6월 모평, 약점보완 필수... 최다 N수생 ‘변수’

N수생 비율 30%... 역대 최대 모평 성적, 중요한 입시 활용 지표 ‘수능 출제 오류 개선안’ 첫 적용

‘수능 가능자’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N수생의 최대 등장 등이 변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모평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입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6월 모평 6월 9일 실시... 일주일도 안 남아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평을 6월 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92개 고등학교와 45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6월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47만 7148명, 재학생은 40만 473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7만 6675명이다. 작년 6월 모평 대비 지원자 수가 5751명 감소했고, 재학생은 1만 5321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9570명이 증가했다.

이번 6월 모평은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제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한 첫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시험이다. 이의신청 접수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심사는 13일부터 21일까지 이뤄진다. 6월 21일에는 정답 확정 발표가 같이 있을 예정이며 학생들에게는 7월 6일 성적이 통지된다.

6월 모평은 ‘미니 수능’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모평 등급이 수능에서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이번 수능은 N수생의 증가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수능과의 차이 폭을 가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학원가에서는 2023 수능에서 재수생 비율이 최근 13년간 중 최고치를 기록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종로학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6월 모평에서는 재수생이 13.8%에서 본 수능 29.7%로 올랐고, 2023학년도에는 6월 모평 재수생이 16.1%이기 때문에 최대치를 갱신해 처음으로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종로학원은 재수생 증가 원인으로 정시 확대 기조, 통합수능에 따른 문과 학생들의 피해를 들었다. 또한 이과 학생들 문과 교차지원 기회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과 재수생 증가했으며, 통합수능 부적응 등의 반수생 증가도 원인

으로 꼽았다.

## ◆6월 모평 입시 활용법...올바른 성적표 분석 중요

6월 모평은 대입 전략에 우선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진학사는 6월 모평 성적표에 관해 다음과 같은 활용법을 제시한다.

6월 모평 성적은 과목 선택 기준의 지표가 된다. 6월 모평은 9월 모의고사와 더불어 실제 수능과 유사한 수준의 시험이므로 탐구 과목 등의 응시 과목 최종 선택에 참고하게 된다. 선택 과목으로는 국어 영역의 언어와 매체 및 화법과 작문,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과목이 있다.

수시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실제 수능과 유사한 수준의 시험이므로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리스트업 해 볼 수 있다. 이 리스트에 따라 지원자의 수시 지원 대학 및 전략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신 등급보다 6월 모평 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수준이 올라간 만큼 수시 지원 시 상향으로 지원해 보는 것

도 가능하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가능해 보아야 한다. 수시(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등)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보다는 일반적으로 지원 경쟁률 및 실질 경쟁률(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 모두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합격 확률은 더 높은 편이다.

따라서 6월 모평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체크해 보고 충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전략적으로 어느 영역에 더 시간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지난번 모의평가에 비해 등급이 하락한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영역별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를 통해 본인의 약점을 반드시 보완하기를 바란다. 또한 아직 수능 과목 선택이나 수시 지원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모의고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환경의 날’ 맞아 MZ세대 이벤트 연다

### 서울시, 반포한강공원서 줍깅 행사 5일부터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서울시는 ‘환경의 날 주간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5일에는 반포한강공원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줍깅으로 감탄해’ 행사를 개최한다.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는 신조어에서 착안한 단어로, ‘감탄해’는 탄소를 감량한다는 의미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학교 환경동아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전모집을 실시해 선발한 MZ세대 100여명과 함께 한강 쓰레기 청소를 할 예정이다. 줍깅을 완료하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받을 수 있다.

시는 줍깅으로 감탄해 행사 기간에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은 ‘일회용품 숨은그림찾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다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5일부터 11일까지는 ‘단 하나의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구청, 학교 주변 등에서 일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다이어트, 일주일에 한번 채식하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

### 송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 이브이알스튜디오와 협약

송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이브이알스튜디오와 게임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게임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과 교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멘토링, 특강 운영 등 협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 공동 운영을 위한 협력 ▲우수 학생 취업을 위한 취업시스템 공동 구축 등 상호 구축 체계를 만들고 공동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1992년에 설립 인가를 취득했으며, 현재 음학 학사 학위과정 5개 전공과 일반학사 학위과정 9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종합교육 기관의 경험을 기반으로 ‘K-컬처 콘텐츠 과정’ 신설과 ‘메타버스 스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신하은 기자



지난달 31일 충남 공주시 월미농공단지에 위치한 삼성기계(주) 본관동 3층 회의실에서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과 삼성기계(주) 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인재양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체결이 이뤄졌다. 한금대 삼성기계(주) 대표이사(가운데 왼쪽)와 유성용 창의라이프대학장(가운데 오른쪽)이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향대

## 순천향대, 삼성기계와 인재양성 업무협약

### 3D 프린팅 기술자문 등 추진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창의라이프대학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 월미농공단지내에 위치한 삼성기계 3층 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의라이프대학이 스마트팩토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 분야의

첨단 강소기업과 손잡고, 스마트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첨단 교육분야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4자원 지원 및 활용 ▲샌드 3D 프린팅 관련 기술자문 등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하은 기자

## 경희사이버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자기소개 80%, 인성검사 20%

경희사이버대학교가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7개 학부·스쿨, 37개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학과는 ▲IT·디자인융합학부 ▲미래인간과학스쿨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부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외식조리경영학과 등이다.

신입학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2학기 이상 수료 및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2학년 편입학으로,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수료 및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는 3학년 편입학으로 지원 가능하다. 졸업 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전형은 수능이나 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한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지원자의 장점, 경험과 경력, 지원동기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인성검사는 객관식 50문항으로 이뤄진 표준인성검사를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기타 입학 관련 문의는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입학상담처에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삼육대, KT와 ‘디지털 교육혁신’ 나선다

유무선 교육 인프라 개선 등 공동 협력

삼육대학교와 KT는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5월 31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내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유무선 교육 인프라 개선에 공동 협력하고, 메타버스, 원격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등 신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모

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KT는 자사의 AI 실무 자격인증 제도인 ‘AIFB(AI Fundamentals for Business)’와 AI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에이블스쿨(AIVLE School)’ 등 다양한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삼육대에 지원한다. 더불어 교내 교육 인프라 개선과 클라우드 환경 전환, 메타버스에 기반한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